

## 創意性 발달을 위한 教育



同德女大 總長 金 鍾 協

大學教育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德目은 學生들의 創意性을 發達시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 大學의 教育傾向은 學生들에게 知識을 傳授하는 식의 講義라고 보겠는데, 講義法을 愚昧할 필요가 있다.

어떤 項目 또는 術語에 대한 解說보다는 그와 같은 지식 항목과 술어가 創製된 緣유와 過程을 學生들에게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知識이나 術語 따위는 백과사전이나 용어 해설집을 찾게 하면 될 것이고, 누가 그와 같은 知識의 發見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였는가를 感動을 주면서 說明하여야만 하겠다.

노벨科學賞이나 經濟學賞은 創造的인 研究를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수상하지 못하였다. 創意性이 결여된 教育의 탓이라 할 것이다.

後進國에서 개발도상國으로, 開發途上國에서 중진國으로, 中進國에서 선진國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지금 先進國의 문턱에 들어 섰다고들 하는데 이제는 모방과 技術導入은 止揚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메이드 인 코리아’ 商品은 많은데 ‘오리지날’은 하나도 없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創造性을 啓發하고 發達시키는 좋은 教育方法이 없는가를 생각해 본다.

120分짜리 강의를 敎壇 위에서 靑山流水 같이 짝 늘어 놓고 講義室을 나서는 敎授의 수고는 대단하지만, 知識傳達로서 始終하지는 않았는지, 어떤 學者의 創造的 아이디어나 努力談 같은 것을 實感있게 說明하였는지 反省하지 않을 수 없다.

孔子의 말 가운데 “學而不思則罔이오, 思而不學則殆이니라”하는 것이 있다. 배우는 學生에게 생각할 機會와 動機를 敎授가 주었는가를 反省하는 것은 創造性 發達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講義中에 學生에게 質問을 던져 보았는가? 對話를 해 보았는가? 演習問題 또는 課題物을 부과하였는가? 學生 自身이 스스로 무언가 생각하도록 敎授가 計劃하고 實施하였는가를 檢討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講義가 설명이나 지식의 傳達로서 끝난다면, 大學講義는 高3 受驗班 수업이나 大學入試

---

學院 강의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요즘 大學은 토요일에 講義가 없는 데가 많으며 教授도 나오지 않는 데가 많다. 또 평일에도 學生은 정오 12時만 되면 대부분 下校한다. 140 학점 實驗大學이라고 하여 講義가 그리 많지 않다.

과연 大學教授는 편한 職業이고, 大學은 學生들에게 있어서 놀기 좋은 곳인가?

각 教授마다 매주 어김없이 演習問題 풀이와 思索을 요하는 課題를 부과하여야 하고, 學生들은 밤 늦게까지 ‘레포트’ 作成을 위하여 밤잠을 설치는 곳이야말로 眞正한 大學일 것이다. 그리고 教授는 學生들의 ‘레포트’를 綿密하고도 철저하게 읽어보고 學生 自身の 생각하는 바가 그 속에 담겨 있는가를 檢査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어느 한 教授만이 宿題를 부과하면 나머지 다른 教授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를 알아 보니 A 教授의 강의 시간에 B 教授의 숙제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10 매 정도의 宿題物이면 學生 10 명이 각각 1 매씩 분담하여 만들어와서는 서로 交換하면서 시간중에 베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大學敎育은 虛事이다. 프랑스에서는 試驗을 口頭로 치른다고 하는데 一理 있는 方法이다. 對話를 하면 상대방의 知的 水準과 思考力(創意性)을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大學에서는 教授와 學生間에 對話의 기회가 아주 적다. 서로가 警戒하고 敬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가? 경계하는 편은 서로의 형편없는 實力이 露出될까 두려워 하는 때문인지 또는 귀찮아서 그런지 그 理由를 모르겠다. 경원하는 편은 御用교수다, 無能교수다, 또는 運動圈 學生이다, 아니다 등등의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서 그런지 알 수 없다. 하여튼 서먹서먹하게 보인다.

일반적으로 大學教授는 바쁘다. 他校 出講에다가 冠婚喪祭 참석, 각종 委員會에 출석하는 일, 진급 및 업적을 위한 研究와 論文作成, 資料 수집을 위한 출장, 圖書館 출입, 여러 사람과의 만남, 각종 세미나 참석, 主題發表 및 그 準備, 學生指導를 위한 학생과의 면담, 學舍 출석 및 학회 업무, 보직 교수이면 行政 및 學事業務 처리, 見聞을 넓히기 위한 海外 나들이, 同僚 교수 또는 學舍 회원과의 社交를 위한 모임, 女權과 兒童權의 尊重과 不平의 무마를 위한 家庭管理 등등 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러니 한 주에 수십 명, 수백 명이 提出하는 방대한 物量의 레포트를 어떻게 다 보고 評價를 할 수 있겠는가? 실로 不可能에 가깝다. 그래도 대학 교수라면 의례히 이 일만큼은 해내야 할 것이다. 創意性의 啓發은 大學敎育의 生命이요, 학생과 교수와의 心的 往來가 創意力을 涵養하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그의 著書「物理學의 發達」에서 “科學이란 事實이나 法則을 두서 없이 엮어 모은 목록이 아니다”고 말하였다. “科學은 人間의 마음(human mind)이 차유롭게 창조해 낸 理念, 思想, 觀念 및 概念을 內包하고 있다”고 한다. 올바른 創造에는 올바른 認識과 感知가 필요하며, 올바른 認識과 感知作用은 마음의 構造(structure of mind)가 公明正大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創造를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의 自由로운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學生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곧 創造性을 啓發하는 敎育일 것이다. \*